

2002년도 시멘트 결산서

김 재 열 (한국양회공업협회 기획팀 대리)

1. 2002년 국내 경제동향

월드컵의 4강 신화속에 붉은 물결이 전국을 메우고 그 함성이 세계를 진동했던 한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다. 월드컵, 아시안 게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그리고 연말의 대통령 선거 등으로 금년 또한 어느해 보다 숨가쁘게 달려온 한해로 기억될 것이다.

지난해 발생한 미국 뉴욕 세계무역센터 테러 사건은 아직도 이라크와의 전쟁 가능성으로 세계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국내경제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부진 속에서도 빠른 회복세를 시현하였다. 상반기에는 저금리를 바탕으로 특소세 인하와 그동안 추진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등의 영향으로 소비와 건설투자가 크게 늘어난 데다 수출도 회복세로 돌아서 성장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3/4분기에 들어와서는 수해와 태풍 그리고 추석 등의 요인으로 성장률이 하락세를 보였으며 4/4분기중 수출 신장세가 확대되어 연간 전체로는 전년의 3.0%에 비해 3.2% 포인트 증가한 6.2%의 성장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에 연평균 4.1% 상승한 소비자 물가는 공업제품 가격과 공공요금 안정 등으로 상승폭이 상당히 둔화된 2.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는 수출이 수입 보다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여행수지 악화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로 전년의 흑자구조를 지속하였으나 그 규모는 지난해의 86억달러에 비해 축소된 70억달러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설비투자는 그동안 높은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진했던데 따른 투자압력과 수출회복세 그리고 전년에 9.8% 감소한데 따른 반사효과로 금년은 7.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투자는 전년의 5.8% 성장에 이어 금년 1/4분기중 건물건설을 바탕으로 10.1% 늘어나는 등 높은 증가를 보였으나 3/4분기에는 태풍과 추석 등으로 3.8% 감소에 머물고 4/4분기는 2.2% 늘어나는데 머물러 연간으로는 2.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2. 2002년 국내 건설동향

'98년부터 3년간 계속된 건설투자의 하락세가 2001년에 5.8%의 증가로 일단락되고 금년에도 5%대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초부터 저금리와 주식시장의 위축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금이 정부의 임대사업 지원 정책 등 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아울러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일조권 확보 등의 건축기준 강화를 앞두고 대거 건축에 나섰으며 가파른 전세가 및 매매가 상승은 건설경기 과열 조짐으로까지 비춰졌다. 이에 주택시장 과열을 우려한 정부가 서둘러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고 금융권도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등의 조치가 이어져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나려던 건설시장을 냉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시장원리를 무시한 성급한 대책과 조치는 결국 최근 한국은행이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잘 나타나 있다. 12월 10일 발표한 한국은행 경제전망을 살펴보면 건설투자가 금년 상반기 6.6% ↑, 하반기 0.6% ↓로 연간으로는 2.6% 증가에 그치고 내년도에도 2.5% 정도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10월경 각 연구기관이 발표한 금년 5.3% ↑, 내년 3.6% ↑ 보다 상당히 비관적 시각으로 보는 것으로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른 주택시장 위축을 들고 있다.

건설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동향을 살펴보면 전년 5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허가면적이 금년 1/4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가 둔화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금년의 전년대비 건축허가 추이를 월별로 보면 1월 79.6% ↑, 2월 80.9% ↑, 3월 138.8% ↑, 4월 76.0% ↑, 5월 68.4% ↑, 6월 3.0% ↑, 7월 34.3% ↑, 8월 17.6% ↑, 9월의 15.4% ↑, 10월 40.8% ↑로 1~10월 누계치는 114,158천㎡로 전년 동기대비 48.9% 증가하였다. 특히 이는 '97년 동기간 89,794천㎡ 보다도 27.1% 증가한 양호한 실적이다.(<표-1>)

용도별 실적을 보면 전부문이 전년보다 증가한 가

운데 먼저 주거용과 상업용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저금리 기조 유지 및 임대수요의 증가 등으로 10월 까지 각각 24.4%, 112.1% 늘어났으며 공업용은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12.0% 증가하였고 문교사회용 건축허가면적은 전년 부진했던 학교시설 증축 등으로 전년동기대비 39.0% 증가하였다.

한편 건설교통부에서 건축허가실적과 같이 발표하는 건설실태를 파악하는데 가장 근접한 건설동행지수인 건축착공실적을 살펴보면 전반적인 추세는 건축허가면적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2>)

건축허가와 마찬가지로 상업용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주거용과 공업용 또한 꾸준한 증가를 보였고 그동안 기타로 분류하던 문교사회용 통계를 금년 1월부터 분리하여 집계하기 시작한 것이 특이 사항이라고 하겠다.

아울러 건설동행지표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건설수주동향에 따르면 2002년 10월까지의 국내건설공사 총수주액은 42조 4,85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7.2% 증가하였으나 '97년 동기와 대비할 경우에는 14.1% 감소하여 건축허가나 건축착공과는 달리 수

<표-1> 연도별 건축허가실적

(단위 : 천㎡, %)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1~10월		
					2002년 1~10월	전년대비	
용도별	주거용	31,156	44,606	41,283	47,856	46,010	124.4
	상업용	8,753	11,746	18,882	25,888	42,440	212.1
	공업용	2,796	7,824	11,646	13,538	12,792	112.0
	문교사회	3,983	4,478	5,126	5,534	6,115	139.0
	기타	4,277	3,880	4,122	4,901	6,801	176.2
구조별	철골조	46,701	66,192	75,292	91,562	111,929	156.5
	조적조	1,889	2,340	2,056	2,056	1,826	101.3
	목조	113	142	178	181	139	88.7
	기타	2,262	3,860	3,533	3,918	264	8.2
합계	50,965	72,534	81,059	97,717	114,158	148.9	

* 자료 : 건설교통부.

〈표-2〉 연도별 건축착공실적

(단위 : 천㎡, %)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1~10월		
					전년대비		
용도별	주거용	14,568	24,537	26,730	33,206	34,524	127.1
	상업용	7,830	10,566	14,109	20,165	32,575	196.8
	공업용	2,942	7,273	10,126	9,594	11,086	144.5
	문교사회					4,759	-
	기타	7,046	7,077	6,875	7,797	6,331	100.0
구조별	철골조	27,378	43,001	52,682	65,157	87,340	165.3
	조적조	2,127	2,478	1,751	1,908	1,600	95.4
	목조	137	167	120	106	119	142.0
	기타	2,744	3,807	3,287	3,591	216	6.9
합계	32,386	49,453	57,840	70,762	89,275	154.7	

* 자료 : 건설교통부, * 주 : 문교·사회용은 2002년 1월부터 조사.

주난에 허덕이는 건설경기의 부진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표-3〉

발주자별로는 민간부문이 30조 9,377억원으로 전년대비 48.0% 증가한데 비해 공공부문은 10조

5,196억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에 그쳤다.

공종별로는 건축공사가 31조 2,542억원으로 전년대비 41.5% 증가하였으나 토목공사는 11조 1,089억원으로 전년대비 0.7% 감소하여 민간부문의 건축

〈표-3〉 연도별 건설수주실적

(단위 : 억원, %)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1~10월		
					전년대비		
발주자별	공공	208,323	143,876	131,226	183,827	105,196	101.5
	민간	138,021	209,431	259,190	267,136	309,377	148.0
	제조업	12,665	18,928	28,595	24,581	25,315	121.3
	비제조업	125,356	190,503	230,595	242,555	284,062	150.9
	국내외국기관	1,008	1,276	914	1,065	1,517	142.4
	민자	12,917	8,409	26,445	25,913	8,760	43.6
공사종류별	건축	167,977	224,545	272,847	287,633	312,542	141.5
	주택	109,015	174,017	200,312	207,507	226,534	142.9
	비주택	58,962	50,528	72,535	80,126	86,008	138.0
	토목	190,971	136,526	143,536	188,980	111,089	99.3
	전문공사	1,321	1,921	1,392	1,328	1,219	106.1
합계	360,269	362,992	417,775	477,941	424,850	127.2	

* 자료 : 통계청.

* 주 : 건설교통부 장관 면허업체중 기상실적 상위 290개 업체 실적.

공사, 특히 주택건설이 금년의 건설경기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시멘트 수급동향

가. 내 수

건설의 주요 기초자재인 시멘트는 건설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아울러 건설공사의 환경에 속하는 기상여건도 무시 못할 변수로 작용한다. 이러한 경기와 일기에 따라 시멘트 수요도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건설투자를 예로 볼 때 금년의 예상액(KDI, 삼성연, 건산연, 환경연 평균) 76조 9,625억원은 '97년 89조 2,848억원의 86.2% 수준으로 시멘트 내수 또한 지난 '97년을 정점으로 '98년 27.8% 감소한 후 '99년 0.2% ↑, 2000년 7.3% ↑, 2001년 4.3% ↑에서 금년에는 약 8.5%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97년의 90.5%

에 머물러 외환위기 이전의 내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표-4〉)

일기의 경우 평년 연간수량이 1,400mm 정도이고 연중 2~3개의 태풍이 직·간접의 영향을 미치나 금년의 경우 11월까지 1,373mm(서울 기준)로 7~8월의 강수량 909mm를 제외하면 연중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었으나 7월의 일부지방의 집중호우 그리고 8월말의 태풍의 상층은 너무나 크고 깊었다. 금년중 발생한 26개의 태풍 가운데 3개의 태풍이 영향을 미쳐 일기 조건은 평년 수준이었다고 하겠다.

내수의 분기별 전년대비 증감율을 살펴보면 1/4분기 33.7% ↑, 2/4분기 6.4% ↑, 3/4분기 6.5% ↓, 4/4분기 11.6% ↑ 등으로 예상되어 연간으로는 전년보다 8.5% 늘어난 54,300천톤이 기대된다.

(1) 계절별 출하실적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위도 온대성 기후대에 위치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이 뚜렷하게

〈표-4〉 2002년 시멘트 수급 실적

(단위 : 천톤, %)

구 분	수 요			공 급			재 고
	내 수	수 출	계	생 산	수 입	계	
1/4 분기	10,084 (133.7)	660	10,744	10,802 (130.1)	164	10,966	1,417
2/4 분기	15,938 (106.4)	780	16,718	16,046 (102.8)	394	16,440	1,140
상 반 기	26,022 (115.5)	1,440	27,462	26,848 (112.3)	558	27,406	
3/4 분기	12,705 (93.5)	556	13,261	13,324 (96.8)	325	13,649	1,528
4/4 분기	15,573 (111.6)	549	16,122	15,428 (107.3)	341	15,769	1,176
하 반 기	28,278 (102.7)	1,105	29,383	28,752 (102.2)	666	29,418	
합 계	54,300 (108.5)	2,545	56,845	55,600 (106.8)	1,224	56,824	

* 주 : 12월은 추정치, 연간 크링카 수출 929천톤 별도, ()는 전년동기대비.

〈표-5〉 최근 10년간('93년~2002년) 시멘트 내수의 계절지수 및 출하비

(단위 : %)

구분	1월	2월	3월	1/4분기	4월	5월	6월	2/4분기	상반기	7월	8월	9월	3/4분기	10월	11월	12월	4/4분기	하반기
계절지수	50.5	57.2	106.3	71.3	118.5	117.6	112.7	116.3	93.8	97.6	97.3	105.9	100.3	118.3	118.1	100.0	112.1	106.2
구성비	4.2	4.8	8.8	17.8	9.9	9.8	9.4	29.1	46.9	8.2	8.1	8.8	25.1	9.9	9.8	8.3	28.0	53.1

나타난다. 겨울에는 한랭 건조한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춥고 건조하며, 여름에는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가장자리에 들어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봄과 가을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다. 이러한 기후 변화속에 연중 건설공사는 봄과 가을에 집중되고 여름과 겨울은 우기와 혹한으로 비수기가 되는 등 계절과 일기의 상태에 따라 시멘트의 소비도 유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통상적인 소비재 상품과 구분되는 특징도 최근 들어서는 건설공법의 발달로 점차 성·비수기의 구분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다.

최근 10년간 출하의 계절지수를 살펴보면, 연간 평균치를 100으로 볼 때 1월과 2월은 이에 훨씬 밑도는 60선에도 미치지 못하여 비수기임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으며, 3~6월로 이어지는 2/4분기와 9~11월이 연중 성수기를 이루며 7월, 8월, 12월은 100선에 위치하여 평균정도의 출하수준을 보이고 있다.〈표-5〉)

한편 2002년의 분기별 출하구성비를 살펴보면 1/4분기 18.6%, 2/4분기 29.3%, 3/4분기 23.4%, 4/4분기 28.7%로 2/4분기가 피크를 기록하였고, 반기별로는 상반기 47.9%, 하반기 52.1%로 각각 26,023천톤, 28,277천톤을 출하하여 하반기가 2,254천톤 더 많았다. 이는 최근 10년간의 상하반기 구성비인 46.9%, 53.1% 보다 상반기가 1.0% 늘어난 형태로 1/4분기의 내수가 크게 늘어난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 수요별·품종별 출하실적

시멘트 국내출하는 크게 관급자재로 사용되느냐 아니면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하느냐에 따라 구분하

는 방법과 포장이나 그렇지 않느냐의 외형적인 면을 나누는 방법이 있다.〈표-6〉)

먼저 수요자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인 수요별 실적을 살펴보면 10월까지 전체 국내출하 44,283천톤중 민수가 43,726천톤으로 98.7%를 차지하였으며 관수는 1.3%인 557천톤에 그쳤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민수비율인 98.4% 보다 0.3%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지금까지 민수 비중이 최대의 실적을 보였던 2001년의 98.5% 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민수가 증가하는 것은 공공공사의 자재수급이 건설회사가 자체 조달하여 시공하는 형태로 바뀌고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도 민자유치가 활발히 진행되는데 따른 현상으로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출하형태에 따른 품종별 출하실적을 살펴보면 벌크 출하는 수입시멘트를 포함하여 10월까지 39,357천톤으로 88.9%로 파악되어 전년동기의 88.5% 보다 0.4% 포인트 증가하여 연말까지의 실적을 감안하면 전년의 수준인 88.7%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진다.

〈표-6〉 2002년 수요별·품종별 출하실적

(단위 : 천톤, %)

구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1~10월		
					2002년 1~10월	전년대비	
수요별	민수	43,053	42,957	46,930	49,283	43,726	110.2
	관수	1,562	1,764	1,070	772	557	89.0
	민수비중	96.5	96.1	97.8	98.5	98.7	
품종별	포장	5,576	5,417	5,313	5,646	4,926	106.4
	벌크	39,039	39,304	42,687	44,409	39,357	110.3
	벌크화율	87.5	87.9	88.9	88.7	88.9	
합계	44,615	44,721	48,000	50,055	44,283	109.9	

이러한 벌크화율이 매년 증가하는 원인은 신속, 편리한 잇점을 지닌 레미콘의 사용이 대형·고층 건축물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주택건설에도 일반화된 시멘트 소비양태로 변화되고 최근의 건축물이 고층화되면서 슬럼프치를 상향하는 등 품질향상에 주력하였기 때문으로 금년 10월까지의 전체주택건설 507천호 가운데 252천호가 다세대·다가구 등의 소형주택인 점을 감안하면 벌크 사용의 일반화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는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벌크화율이 95.0% 수준인 점을 보더라도 지속적인 증가현상을 예견할 수 있다.

나. 생산

금년의 생산실적을 반제품인 크링카와 완제품인 시멘트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크링카 생산은 49,800천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보다 5.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분기별로 보면 1/4분기 9,855천톤 24.3% ↑, 2/4분기 13,991천톤 1.1% ↑, 3/4분기 12,520천톤 0.5% ↓, 4/4분기 13,434천톤 3.0% ↑ 등으로 1/4분기의 큰폭의 증가와 3/4분기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아울러 완제품인 시멘트 생산은 1/4분기 10,802천톤 30.1% ↑, 2/4분기 16,046천톤 2.8% ↑, 3/4분기 13,324천톤 3.2% ↓, 4/4분기 15,428천톤 7.3% ↑ 등으로 크링카 생산과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

1/4분기의 높은 증가율은 전년의 경우 크링카와 시멘트 생산 모두 각각 5.0%, 8.2% 감소한 반면 금년은 주차장법과 건축법 강화를 앞둔 소규모 주택건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데 따른 것이고 3/4분기의 감소는 전년에 크링카와 시멘트가 각각 11.1%, 19.6% 증가한데 따른 반사효과와 전년의 추석이 10월이었던데 반해 금년은 9월중에 있었으며 또한 강원지역에 위치한 동양, 쌍용, 한라의 생산시설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어 복구가 이루어지기까지 약 보름 정도 생산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업계 총 50개 기업의 금년 가동율은 80.5%로 예

상되어 '96년 92.5%, '97년 94.7%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무르나 전년의 76.6% 보다는 소폭 상승하여 '98년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 수출입

시멘트는 가격에 비하여 부피가 크고 중량물인 이유로 인해 물류비의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내수 위주의 산업 특성상 수출입은 단기적인 수급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주로 근접국가간에 발생되어 왔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계속된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위축된 국내수요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출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국외의 여건도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의 침체 지속과 동남아 각국의 수출 시장에서의 도전으로 어려움이 지속되어 '99년 4,998천톤이던 수출이 2000년 4,886천톤, 2001년 4,646천톤 등으로 매년 감소를 보였고 금년은 내수 증가에 따른 수출 물량의 확보 어려움까지 겹쳐 전년보다 25% 정도 감소한 3,474천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 실적을 보면 2001년 22개국이던 수출대상국이 금년에는 13개국으로 줄어들었으며 반덤핑 분쟁으로 전면 수출이 중단된 대만과 그 외의 중국, 토고, 일본의 순으로 감소하였고 미국, 가나, 아이보리 코스트, 베냉 등은 늘어났으며 방글라데시는 전년 실적이 없던 시장이다.(<표-7>)

품종별로 살펴보면 크링카가 929천톤으로 전년보다 43.6% 감소하고 시멘트는 2,545천톤에 그쳐 25.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수출 가운데 시멘트의 비중은 '93년~'96년과 '98년을 제외하고는 전통적으로 우위를 보여왔으며 전년의 64.6%에 이어 금년에는 73.3%로 시멘트 비중이 전년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로 크링카를 수출하는 중국, 토고, 나이지리아로의 물량이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표-8>)

사별 수출실적은 크링카 수출을 포함하여 동양

〈표-7〉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천톤)

구분	미 국	일 본	가 나	아이비코스트	방글라데쉬	베 넵	베트남	중 국	대 만	토 고	나이지리아
2001년	1,397	1,096	126	315		42	24	486	476	389	72
2002. 1~11	1,541	723	223	220	118	111	75	52			

* 주 : 크링카 포함.

1,597천톤(5.5%), 쌍용 1,496천톤(-43.3%), 한일 7천톤(40.0%), 성신 316천톤(64.6%), 한라 58천톤(-80.7%)으로 쌍용과 한라가 전년보다 큰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륙사가 잉여물량을 연안사를 통해 수출함으로써 가동율을 제고시키는 한편 연안사의 내륙시장에 대한 시멘트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시멘트 수급에 크게 기여하는 출하형태인 교환수출의 경우 쌍용과 성신 151천톤, 한라와 성신 165천톤을 합쳐 316천톤으로 전년의 192천톤에 비해 64.6%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수출은 포장시멘트 보다는 기계장치에 의한 선적과 하역 및 대량수송이 용이한 벌크시멘트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금년에도 포장시멘트는 12천톤이 수출되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벌크 형태로 수출되었다.

한편, 국내공급 부족시 수급안정을 위해 들어오던 수입은 '98년부터 내수의 침체로 줄었으나 전년과 비교할 때 시멘트는 대한 783천톤, 한일대우 441천톤으로 23.8% 증가하였으며, 크링카는 생산시설이 없는 대한에서 '98년말부터 수입을 하였으나 금년에는 전면 시멘트 수입으로 대체하였고 고려에서만 3

천톤을 수입하는데 그쳤다.〈표-9〉

라. 재 고

시멘트는 산업 특성상 대규모 설비를 필요로 하는 장치산업으로 생산능력이 일정한데다 생산지와 소비지가 원거리에 위치하여 수송상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며 부피가 크고 중량물인 관계로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시멘트 수요는 계절과 건설경기 에 따른 변동폭이 심하여 적정재고라는 개념 또한 항상 변동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올해의 시멘트의 재고를 보면 전년말 이월재고는 1,275천톤으로 금년의 공급이 56,824천톤(수입 1,224천톤 포함), 수요가 56,845천톤(수출 2,545천톤 포함)으로 예상되어 연말재고는 1,176천톤에 그칠 것으로 보여진다.〈표-10〉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공급능력을 밀도는 수요로 인해 필요량만 생산하여 재고관리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멘트와 크링카를 합친 전체 재고는 8, 9월을 제외하고는 전년보다 적은 수준에 머물렀다. 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수요가 급증한 5, 6월과 11월 그리고 수해로 생산차질을 빚은 9월에

〈표-8〉 연도별·품종별 수출현황

(단위 : 천톤)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p)
크링카	1,584	1,337	940	1,645	929
시멘트	1,240	3,661	3,945	3,001	2,545
합 계	2,824	4,998	4,886	4,646	3,474

* 주 : (p)는 예상치.

〈표-9〉 연도별·품종별 수입실적

(단위 : 천톤)

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p)
크링카	5	480	162	96	3
시멘트	178	135	518	989	1,224
합 계	183	615	680	1,085	1,227

* 주 : (p)는 예상치.

〈표-10〉 2002년 월별 크링카 및 시멘트 재고 추이

(단위 : 천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크링카	1,406	1,444	999	749	716	655	1,276	1,611	1,309	1,292	1,094	1,034
시멘트	1,513	1,573	1,417	1,288	1,061	1,140	1,286	1,501	1,528	1,278	866	1,176

* 주 : 크링카 포함.

는 지역적으로 시멘트 재고가 부족한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마. 수 송

8월말 전 국토에 걸쳐 커다란 손실을 끼쳤던 태풍 루사로 인해 철도설비가 마비되고 도로가 소실되어 한달여 가까운 시일동안 시멘트 수송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주도하에 정책적으로 추진되었던 건설경기 부양에 힘입어 그동안 위축되었던 시멘트 생산 및 내수물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시멘트수송 역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호전되어 금년 10월까지의 수송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 45,813천톤보다 2.8% 증가한 47,093천톤을 운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경기 상승세가 지속되며 시멘트 운송량이 최고점에 달했던 '97년 10월까지 50,013천톤을 운반했던 것과 비교할 때 6.3% 감소한 실적이기는 해도, IMF 직후인 '98년 38,531천톤을 운반했던 것

과 비교하면 29.8%나 크게 늘어난 실적으로 3년째 계속되고 있는 증가세를 올해에도 이어 나갔다.

수송패턴에서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지난해까지 수송수단중 이용율이 가장 높았던 선박을 통한 수송분담비는 올해들어 전년대비 3.1% 감소하여 34.6%의 분담비에 그친 대신 육송(33.6%), 철송(31.8%)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점이다.

전체수송에서 차지하는 해송의 비율이 감소한 이 유로는 생산공장의 가동율 제고와 내수부진 극복을 위해 늘어왔던 시멘트 수출을 줄여가는 대신 건설경기 호조에 힘입은 내수물량이 큰폭으로 증가하면서 문전 및 적기 수송에서 유리한 철도와 공로를 대체 수단으로 보다 선호한 때문이라 할 수 있겠다.

한편, 중장기적인 시멘트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시멘트 업체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송수단 및 유통기지에 대한 설비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어, 사유화차 수량 감소 및 유통기지의 축소 운영 장기화에 따른 제반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